

‘차량용 반도체 원팀’ 출범… “이르면 2029년 양산차 적용”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포럼

정부·기업 관계자 90여명 참석
국산 반도체 상용화 기반 강화
이규석 사장 “기술 경쟁력 집중”

현대모비스가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부터 검증, 양산까지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정부와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2029년 국산 반도체의 양산차 적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21일 경기 성남시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제2회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포럼(Auto Semicon Korea·ASK)’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과 김경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기업 및 정부·학계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ASK 참여 기업과 기관은 지난해 27곳에서 올해 53곳으로 늘었다. 협력 분야도 기존 팹리스와 파운드리 중심에서 반도체



21일 열린 ‘제2회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포럼(Auto Semicon Korea·ASK)’ 본행사에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현대모비스 관계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철홍 현대모비스 전무,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 이희현 현대모비스 상무. /차현정 기자

설계자산(IP), 소프트웨어, 패키징, 시험·평가, 기능안전 등으로 확대됐다.

이 사장은 환영사에서 “현대모비스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 기업으로서 그간 축적한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며 “각자의 강점을 연결하고 개발부터 검증, 양산까지 함께 책임지는 전주기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첫 포럼 이후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 19건의 협업 과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13건은 개발에 착수했으며 9건은 적용 목표 차종까지 선정됐다. 완성차의 요구사항을 개발 초기부터 반영해 실제 차량 적용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수요 기반 개발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통상부와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전자 등이 참여하는 ‘차량용 반도체 원팀 TF’도 출범했다. 완성차·부품사와 IT 기업, 팹리스, 파운

드리 등이 협력해 국산화 대상 품목을 발굴하고 개발부터 양산까지 연계하는 체계다.

차량용 전력반도체의 공정·평가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팹리스가 설계한 반도체를 파운드리가 생산하고 전문기관의 평가와 수요기업의 실증으로 연결해 국산 전력반도체의 상용화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축사에서 “차량용 반도체 업계가 겪는 애로사항을 더욱 꼼꼼하고 속도감 있게 챙기겠다”며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우리 기술이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시험·검증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차량용 반도체의 신뢰성 평가와 검증을 지원하는 아산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한편 이 사장은 이날 본 행사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산 차량용 반도체의 양산차 적용 시점을 이르면 2029년으로 제시했다. 현대모비스는 내년부터

개발 중인 반도체를 차량 개발 초기 단계에 투입해 양산을 위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 사장은 반도체 개발에 통상 2~3년이 소요되고 차량 탑재를 위한 신뢰성 평가까지 고려하면 양산까지 약 4~5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초기 적용 물량이 제한적인 만큼 단기간의 매출 확대보다는 중장기적인 공급망 안정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파운드리 활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생산시설을 우선 활용하되 대용이 어려운 분야는 해외 파운드리로 보완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 사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비슷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국내 파운드리를 우선 활용하고 국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은 해외 파운드리로 보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yeon@metroseoul.co.kr



차세대 시스템 에어컨 ‘LG 멀티 브이 7’ 첫 선

하프코 2026

LG전자, ‘멀티 브이 7’ 듀얼 AI 탑재
공간 맞춤형 냉난방공조 솔루션 소개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술과 차세대 컴프레서를 적용한 시스템 에어컨 신제품을 공개하며 냉난방공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LG전자는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 ‘하프코(HARFKO) 2026’에서 차세대 시스템 에어컨 ‘LG 멀티 브이 7’과 공간맞춤형 냉난방공조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한 LG 멀티 브이 7은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를 결합한 ‘듀얼 AI’와 신형 ‘스핀엑스(SPIN X)’ 컴프레서를 탑재한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이다. AI 기반 자율운전으로 냉난방 효율과 운전 안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핵심 부품인 스페인엑스 컴프레서에는 2위



LG전자가 21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HARFKO)에 참가해 시스템 에어컨 ‘멀티 브이 7’을 처음 선보였다. /LG전자

이 급유구조와 실시간 오일 상태 감지 기술 등이 적용됐다. LG전자는 컴프레서 구조 개선을 통해 기존 제품 대비 냉난방 성능과 에너지 효율, 운전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히트펌프를 활용한 미래형 주거 솔루션도 선보인다. 전사관을 실제 주거공간처럼 구성해 냉방과 난방, 급탕을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을 소개하고, 에어컨과 공기정정기,

환기 제품을 연동해 실내 공기질과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통합 공기 솔루션도 공개한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 사장은 “가정부터 상업, 산업, AI 데이터센터까지 냉각 솔루션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차별화된 부품 경쟁력인 코어테크 기반의 앞선 솔루션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대한전선, 김준석 신임 대표이사 선임

호반그룹의 대한전선 인수 실무 주도

대한전선이 김준석 사장(사진)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북미·유럽 시장 확대와 고부가 전력케이블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대한전선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김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2021년 호반그룹의 대한전선 인수 실무를 주도했으며, 2023년부터 대한전선 경영부문장과 경영총괄 부사장을 역임하며 경영실적 개선과 사업 구조 재편,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김 사장은 전력망 투자 확대와 에너지 전환으로 성장 기회가 커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특히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해저케이블 등 차세대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생산 역량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투



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영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김 사장은 별도 취임식 없이 사내 그룹웨어를 통해 취임사를 전했다.

그는 대한전선이 축적해 온 기술과 경험,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은 차이들이 모여 회사의 경쟁력이 된다”며 기술·품질 개선과 원가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임직원과 회사의 동반 성장도 강조했다. 김 사장은 “국내외 계열사 임직원과 그 가족까지 약 1만 명의 삶이 대한전선과 함께한다”며 회사의 성장이 구성원과 가족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H&L 어드밴스드, 출범 이후 첫 공개채용

경영관리직·전문직 각각 채용

HD현대케미칼과 롯데대산석화의 통합법인 H&L 어드밴스드가 출범 이후 첫 공개채용에 나서며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에 나선다.

H&L 어드밴스드는 경영관리직과 전문직에서 각각 두 자릿수 규모의 하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영관리직 모집 분야는 ▲기획 ▲인사 ▲재무·회계 ▲영업 ▲생산관리(화공·기계·전기·전자) ▲안전·환경이다. 전공과 관계없이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접수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전문직은 ▲생산(화공·기계·전기·전자) ▲안전·환경 분야에서 모집한다. 고등학

교 및 전문학사 졸업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 예정자가 대상이며, 다음 달 1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다. 일반전형과 함께 서산 시 지역인재전형도 운영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AI 역량검사, 1·2차 면접, 채용검진 순이다. 경영관리직은 3차 면접을, 전문직은 필기전형을 추가로 거친다.

H&L 어드밴스드는 이번 채용을 통해 서울사무소와 대산사업장의 인력 및 주요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합법인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사업재편 효과를 경영 성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스페셜티 소재와 친환경 제품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범용 석유화학 제품 중심의 사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현대차, 5세대 투싼 사전계약… 기본 가격 3140만원

안전·편의사양 등 체감 가치 높여

현대자동차가 6년 만에 선보이는 5세대 신형 투싼의 가격을 공개하고 사전계약에 돌입했다. 기본 가격은 3140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4세대 투싼 가솔린 모델이 2800만원대부터 판매됐던 것과 비교하면 시작 가격이 300만원가량 높아졌다. 다만 차체 크기와 주행 성능을 개선하고 첨단 안전·편의 사양을 기본 적용해 상품성 강화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현대차는 21일 신형 투싼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6 터보 가솔린 모델의 시작 가격은

3140만원이며 하이브리드는 세제 혜택 적용 기준 3615만원부터다. 가솔린 모델은 H-Pick 3140만원, 익스클루시브 3530만원, 인스퍼레이션 3790만원, XRT 3680만원이다. 하이브리드는 트림별로 3615만~4270만원이다.

현대차는 기본 트림부터 고객 선호 사양을 대거 적용해 체감 가치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전 트림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와 앱 마켓을 기본 탑재해 내비게이션과 음악 스트리밍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2 등 안전·주행 보조 기능도 기본

사양에 포함했다.

차체 크기와 실용성도 개선했다. 전장 과 전폭, 휠베이스를 기존보다 각각 60mm, 40mm, 30mm 늘렸으며 트렁크 용량은 645ℓ로 확대했다. 2열 도어 개방 각도도 넓혀 가족 단위 고객의 승하차 편의성을 높였다.

주행 성능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두 개선했다. 가솔린 모델은 최고출력 193마력으로 기존보다 13마력 높아졌으며, 기존 7단 듀얼클러치변속기(DCT) 대신 8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했다. 하이브리드는 시스템 최고출력 245마력과 복합연비 17.4km/ℓ (17인치 휠·2WD 기준)를 확보했다.

/양성운 기자 ysw@